

< 특 강 >

음성학과 음운학의 관련성

허 용

음성학과 음운학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학문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네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음성학과 음운학의 역사. 둘째는, 그 연구 대상 즉 음성학과 음운학의 연구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셋째는,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넷째는, 언어학 분야에 있어서 음성학과 음운학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1. 음성학과 음운학의 역사

음성학의 역사는 음운학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되었다. 보통 음성학의 역사 책들에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음성학은—생리적인 의미의 음성학은—시작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음성학이 발달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를 글자로 정착시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전해 왔던 데에 있는 것 같다. 글, 입으로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매우 중요시 되었고 또한 문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 당시의 음성학과 문법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서구 라파 사람들의 인도 정벌에 따라 인도의 옛날 언어학이 구라파로 들어오고, 그에 따라 구라파에서 음성학이 왕성하게

되는데, 19세기 독일의 생리학자 브뤼케로부터 음성학은 근대적인 학문으로 발달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지펠스는 생리음성학의 집대성을 이룩하였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의 사람인 루솔로는 실험음성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학자들이 구라파에 있어서 근대 음성학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 뒤를 이어 음성학을 근대적인 학문으로서 확고히 정착시킨 사람들로 헨리·스위트, 폴·파씨, 오토·에스페르센, 그리고 다니엘·존스 등을 들 수 있다.

음운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먼저, 보드앵 드쿠르트네는 소리가 존재하는 곳을 두 군데라 생각하고, 그 한쪽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리적인 음성학 다른 한쪽을 연구하는 것을 심리적 음성학으로 분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경향을 이어받은 사람이-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미국의 E. Sapir 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Language (1924)에서, 소리가 존재하는 자리는 두 군데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이면에는 그 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소리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짜피어는 이러한 사실을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착안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운학이 음성학과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결정적 계기를 준 사람이 르루베츠코이 이다. 그의 저서인 Grundzüge der Phonologie 는 현대 음운론에 완전한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해 준, 음운론의 역사로 보아서는, 뛰어난 역작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음운학이 음성학과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뒤를 이어 로만·야콥슨이라든지 촘스키등 - 촘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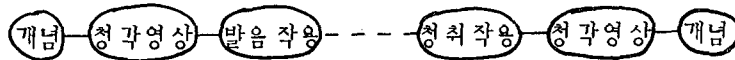
는 좀 다른 방향의 음운론, 즉 생성음운론을 발전시켰다 -에 의하여 음운론은 성장을 계속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 음성학과 음운학의 대상

두 학문의 연구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음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음성학은 음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음운학은 음운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앞에서, 음성학과 음운학이 작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소리가 존재하는 자리가 두 군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라고 하였는데, 소리가 존재하는 자리가 어째서 두 군데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음성학과 음운학의 대상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쉬르는 두 사람이 말을 주고 받을 때 그 언어 순환이 어떻게 진행되는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그림을 살펴 보도록 하자.



왼쪽의 등그라미 세 개는 말하는 사람의 머리 가운데와 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른쪽의 등그라미 세 개는 듣는 사람의 귀와 머릿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머리 가운데 어떤 개념을 떠올리게 되면 그와 동시에 청각영상이 머리 속에 떠오르게 된다. 가령, 우리가 '개'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머리 가운데 떠오르면, 한국 사람이면 그 '개'라는 개념은 바로 /개/라는 머리 속에 있는 소리, 즉 청각영상과 연결된다. 이것이 소위 소쉬르가 말하는 시니피에 개념, 시니피앙 청각영상이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머리 가운데 있는 현상으로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말

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수는 입에 대해서 머리 가운데 있는 청각영상과 같은 소리를 내도록 명령을 한다. 그래서 소리내기가 이루어진다. 잠선은 공기의 음파를 나란낸다. 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소리는 공기의 음파를 통하여 듣는 사람의 귀의 고막을 떨어 올리는 데, 그것이 청취이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청각영상 — 개념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왼 쪽 사람의 개념이 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의 순환 전달과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소쉬르는 개념과 청각영상, 말하자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연결된 자리가 랑그의 자리이고, 발음에서 청취에 이르는 사이(정확히 말하면 언어수행의 과정)가 빠를이 존재하는 자리라 하여 말의 두 면을 구분하고 있다.

위의 언어 순환 과정을 살펴 보면 소리가 존재하는 자리가 두 군데 임이 분명히 나타난다. 즉 빠를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랑그의 자리에 존재하는 소리의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 상 이 두 소리를 소리₁과 소리₂로 구별하여 부르기로 한다. 소리₁은 말하는 이가 입으로 발음을 하여 내고 듣는 이가 귀로 청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리인데, 이것이 소리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소리₂는 우리가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머리 속에 존재하는 소리인데, 머리 속에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으로 증거를 들 수 있다. 첫째, 목독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입을 움직이지 않고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머리 가운데 소리가 존재한다는 한 증거이고, 둘째,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머리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생각은 머리 속에 생각하는 것이고, 머리 속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속에 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추리를 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소리가 존재하는 자리가 두 군데임이 분명히 드러난 셈인데, 음성학의 대상으로서의 소리와 음운학의 대상으로서의 소리가 이 두 군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음성학이나 음운학이나 다 같이 말의 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말의 소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도 두 가지 이질적인 것, 곧 음성학과 음운학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바람에 속하는 소리, 곧 소리₁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이며, 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다시 말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음성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소리₂ 곧 머리 속에 있는 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음운학인데, 머리 속에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음운이다.

이제 음성과 음운이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음성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음운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재적인 것이다. 둘째, 음성은 생리적인, 물리적인 현상인데 비해, 음운은 심리적 정신적인 현상이다. 셋째, 음성은 구체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인데 비해, 음운은 귀로 들을 수 없는 추상적인 현상이다. 넷째, 음성이 존재하는 세계는 무한의 세계인데, 음운이 존재하는 세계는 유한의 세계이다.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IPA는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죄다 적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계의 음성학자들이 머리를 짜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IPA 자체가 구체적인 음성들을 모두 적을 수 있는냐 하면 그렇지 않다. 같은 기호가 쓰이되 그 소리는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인 소리는 전부 다 다른 기호로써 나타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음성이 존재하는 세계의 무한성에 있다. 음성은 무한한데 그것을 표기하는 글자는 아무리

만들어 보아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성학 표기의 하나의 고민이 있다. 고민일 뿐 아니라 음성 표기의 근본적인 결점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써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점인 것이다.

음성이 무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예증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내는 '이'라는 소리와 B라는 사람이 내는 '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을 기계로 분석해 보면, 즉 포르만트 분석을 해서 모음사각도에 점을 찍어 보면 그 점은 반드시 한 자리에 찍혀지지 않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라는 발음을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다르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라는 소리 한 가지만 하더라도 무한히 많은 것이다. 그리고 소리는 연속의 세계이며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모음사각도 상의 기본모음 중 전설 모음의 혀의 위치의 높낮이는 연속적인 것이지 어느 자리에서 단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하게도 연속의 세계에서 단절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음성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운의 세계는 음성의 세계와는 다르다. 어느 나라 말에서나 음운의 수는 일정하다. 가령, 우리말에서 홀소리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개 10개 정도, 그리고 자음은 19개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음성의 무한성에 비하면 극히 적은 유한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음성과 음운의 차이는 유한과 무한의 차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랑그와 빠롤의 차이이기도 한데, 즉 빠롤은 무한의 세계이며 랑그는 유한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랑그가 가지는 요소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랑그와 빠롤의 무한 대 유한의 차이가 바로 랑그에 속하는 음운과 빠롤에 속하는 음성의 성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들어보면, 음성이란 모든 소리바탕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데 대해 음운은 모든 소리바탕의 총체로 보지는 않는다. 어떤 특별한 소리바탕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소리바탕의 모임이 바로 음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성과 음운의 성격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음성학과 음운학이 작별을 하게 된 것이다.

3. 음성학과 음운학의 연구 방법

그러면 양자의 방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음성학의 연구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음성학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음성학은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소리바탕을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미치는 한도까지 모두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음성학의 마지막 목표이다. 가령, 한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 지혜가 미치는 데까지 죄다 파헤치는 것이 음성학의 목표인 것이다.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음성학은 세 방향과 두 방법을 사용한다. 세 가지 방향은 앞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음성이 존재하는 세계는 발음과 전달과 소리 듣기의 세 가지, 아주 이질적인 과정에서 성립된다. 소리 내는 것과 공기에 음파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작용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질적인 작용의 종합이 바로 음성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세 방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소리 내기의 작용을 연구하는 방향, 곧 생리음성학, 둘째는, 소리 전달의 매개가 되는 공기 음파의 성질을 파헤치는 음향음성학, 셋째는, 귀로 듣는 면을 연구하는 청취음성학이 있다. 이렇게 음성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 가서 음성의 모든 바탕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이 그것이다. 주관적인 방법은 기계를 쓰지 않고 우리의 감각기관에 호소해서 그 소리의 발음하는 현상과 소리 듣는 현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방법, 곧 실험음성학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음성학이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발생적인 면, 즉 생리음성학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다같이 쓸 수 있다.

그런데 전달의 면, 말하자면 음향음성학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즉, 우리 눈으로서는 공기의 진동을 살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세번째, 청취음성학은 기계를 사용해서 연구할 수 없으며, 다만 우리가 소리를 귀로 듣고서 그 인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방향과 두 방법을 쓰게 되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음성학 자체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가 소리의 모든 성질을 죄다 파헤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성학의 기본적인 성취 가운데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음성학은 소리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소리 하나 하나를, 생리학자들이 세포를 들여다 보듯, 그렇게 현미경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하여 세 가지 방면과 두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음성학과는 달리 음운학은 소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냐를 생각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소리는 말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가 될 수 있다. 말의 뜻은 전달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음운론을 음성학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말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 말의 뜻과 다른 말의 뜻이 섞여버리지 않도록 모든 말이 각각 제 뜻을 가지고서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의 뜻을 분화시켜 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말의 뜻'이라는 개념을 음운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 말의 뜻에는 이지적인 뜻과 감정적인 뜻이 있다. '면: 나라'의 '면: '은 보통 소리에 비해서 긴소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말에 있어서 나라나는 소리보다 2배나 3배 정도 길게 하면 '면:::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멀다'는 근본적인 개념은 바꾸지 않으면서 한 쪽은 '멀다'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보통 '면: ' 보다는 훨씬 더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감정적인 뜻'이다. 이에 비해서,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를 수반하는 것을 트루베츠코이는 이지적인 뜻이라 하고 있다. 가령, '말'과 '말:'이 달라진다는지, '말'과 '날'이 달라진다는지 하는 것은 모두 감정이 여기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런 것이 이지적인 의미의 차이이다. 이지적

인 뜻은 다시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문 제삼지 않겠다.

그런데 소리는 여러 바탕(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탕들 가운데는 말의 뜻을 분화해 주는데 관여하는 바탕과 관여하지 않는 바탕이 있다. 관여하지 않는 바탕을 우리는 잉여적인 자질이라 한다. 그런데, 음운학은 말의 뜻을 분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음운학에 있어서는 한 소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소리바탕 중에서 말의 뜻을 분화해 주는 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체로 쳐서 내버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잉여, 나머지, 쓸 데 없는 것이라 하여 일단 가려내어서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 그러한 잉여바탕 외에 말의 뜻을 분화하는데 봉사하는 소리의 바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뜻을 분화하는데 봉사하는 소리의 바탕을 표현적 바탕(expressive feature)라 한다. 한편, 이치적인 뜻을 분화해주는 데 관여하는 소리의 바탕이 있는데, 이것을 변별적 바탕(distictive feature)이라 한다. '날'과 '말'은 그 뜻이 다른데, 그 뜻의 차이가 |니|과 |띠|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니|은 혀끝에서 나고 |띠|은 입술에서 나고, 그 나는 자리의 차이 때문에 '니'와 '미'의 두 소리가 구별이 되고 그래서 '날'과 '말'을 구별해 준다. 이 경우에 관여하는 혀끝과 입술이라는 소리의 바탕이 바로 변별적 바탕이다. 그러니까 음운학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은 표현적 바탕과 변별적 바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물론 변별적 바탕이다.

이렇게 보면 음운학에 있어서 소리바탕을 연구하는 것은 음성학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성학은 모든 소리바탕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하려고 한다. 한 음성이 가지는 소리바탕으로 분석된

특질이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모두 파헤치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서 눈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음운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소리바탕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 감정적인 뜻을 표현해주기 위하여 약간 필요한 것, 이지적인 뜻을 분화해 주는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소리의 바탕을 분류하고,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아주 필요 없는 것,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음운학의 출발점이며 음성학에서 보지 못했던 방법이다.

그리고 앞에서 음성학 연구의 태도를, 개별적이고 현미경적이라 하였는데, 음운학에서는 음운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 그런냐하면 음운론에 있어서는 말의 뜻을 분화해 준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 소리의 관련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소리들 끼리의 관련성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조직)가 문제가 된다. 곧 음운학에 있어서는 음운 서로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조직체가 아주 주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음성학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조직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음성이란 무한의 세계요, 무한의 세계에는 조직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운은 유한의 세계이다. 유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직이, 아주 간단한 조직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 좋은 방법이 소위 구조주의이다. 소쉬르는 언어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그 차이뿐이며, 언어란 것은 substance를 낳는 것이 아니고 forme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언어관에서 구조주의가 싹트기 시작한다. 모든 언어요소

의 가치를 그것과 다른 언어요소와의 관련성에서 보려고 하며, 따라서 한 언어요소의 가치는 전체 체계 안에서 그것이 가지는 위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소쉬르의 언어관에서 구조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음운학에 있어서는 음운 서로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다. 이것이 현대 언어학의, 그리고 현대 음운학의 가장 큰 특색으로 꼽힐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의 뜻을 고려한다는 것, 그리고 조직을 아주 중요시 한다는 것이 음운학을 음성학과 다르게 하는 특색이 된다.

4. 음성학과 음운학의 위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구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두 학문이 언어학에 있어서 차지하는 자리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오늘날의 경향은 음운학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음성은 무한의 세계요, 음운은 유한의 세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소쉬르는 바를과 랑그를 양분하고, 언어학 연구의 왕좌는 랑그이며, 랑그에다 자리를 잡고 그것을 일단 연구한 뒤에 바를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근본 이유는 바를이 견잡기 어려운 무한의 세계라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무한의 세계에다가 체계를 세우고 조직을 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한의 세계는 그것이 가능하다. 랑그에다가 언어학의 자리를 잡으라는 소쉬르의 교훈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소리연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음성은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체계를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소리들, 사람마다 다른 소리들, 이 소리들에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음성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학의 연구가 음운학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음운이란 유한의 요소이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 머리 하나만 있으면 대개의 문제는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음운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현실하에서 우리의 연구 방향을,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음성학과 음운학의 언어학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낸 사람들은 다니엘.존스와 르루베츠크이다. 르루베츠크이는 음성학은 언어학 안에 들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쪽으로 보내야 한다. 음성학은 자연과학이지 언어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존스는 음운학 자체가 음성학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의 연구나 음운의 연구나 응당 언어학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학문을 르루베츠크이처럼 엄격하게 준별하지 않고, 음운학을 음성학 내부에서 취급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 그 두 사람의 음운에 대한 정의는 전혀 다르다. 존스는 음운을 '청각적으로나 발생적으로나 서로 비슷하면서 배타적인 배치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가족'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의 특색은, 음

은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요인을 변이음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물론 존스도, 그의 저서인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에서 소의 변별적 자질이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보면 음소와 음소와의 대립관계는 전혀 얘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음소 안에 변이음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그의 책에서는 아주 주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 있다. 존스에 비해서, 트루베츠코이는 한 음소가 변이음을 몇 개 가졌거나, 한 음소가 물질적으로 어떤 요인으로서 성립됐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한 음소가 다른 음소와 대립되는 관계만을 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음운학과 음성학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 존스는 음운을 물질적으로 보아, 음성학의 테두리 내에서 음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음당 언어학 안에 음성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데 대해, 트루베츠코이는 음운의 물질적인 요인, 즉 음성적인 요인을 무시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음성학을 언어학 밖으로 쫓아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트루베츠코이의 이러한 태도는 소쉬르에서 유래한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차이 뿐이다. 어떤 언어요소와 언어요소와의 차이, 이것만이 언어에 있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재라고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쉬르의 언어관에서 트루베츠코이의 음운관이 생겨나고, 트루베츠코이 음운학의 근본적인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forme)이지, 실질(substance)이 아니라는 소쉬르의 언어관에 따라, 트루베츠코이는 소리의 물질적인 요인을 실질적인 것으로 다루어서 언어학의 문제로 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존스의, 음운을 보는 눈은 물질적인 것이고, 트루베츠코이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앙드레.마르띠네는 한 쪽을 실재론자(realiste), 다른 한 쪽을 형식론자(formaliste)라 이름 붙이고, 실재론자 가운데 쿠르트네이나 사피어 같이 심리적인 요인을 음운에다 채워 보려고 한 사람들도 포함을 시켰다. 음운을 심리적으로 본 것이나 물질적으로 본 것이나,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실재론자에 대해서 트루베츠코이 같은 사람, 또 미국에서 기술언어학이 한창 성행할 때 음운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보려고 한 Twaddell 같은 사람들을 형식론자라 이름 붙였던 것이다.

그런데 음운 정의의 역사적인 전개 모습은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역시 물질적인 즉 실재론자적인 면이 강하게 띄기다가, 그 다음에 형식론자적인 면으로 기울어진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것이 종합이 되는데,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지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양이 어디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느냐 하면, 트루베츠코이 자체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트루베츠코이는 음운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면서, 굳이 굳이 음운을 변별적인 소리바탕의 묶음이라는 말을 가끔 하고 있다. 그런데 변별적인 소리바탕의 묶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표면화하느냐 하면 블룸필드(Bloomfield)에서부터이다. 그는 음운을 변별적인 소리바탕의 묶음이라고 아주 분명히 정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프랑스의 마르띠네나 야콥슨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야콥슨은 짝대립(binary opposition)으로서 변별적인 소리바탕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짝대립설은 음운을 변별적인 소리바탕의 묶음으로 보는 음운관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바로 한 줄기이다.

이 줄기는 생성음운론에까지 그 이론적 토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변별적인 소리바탕의 묶음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물질주의자와 형식주의자의 종합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변별적인 소리바탕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파악되는 소리의 특질인 것이다. 가령, '날'과 '말'을 분화해 주는 ㄴ 과 ㅁ 은 하나는 혀끝에서 나고 하나는 입술에서 나서 달라져 있는데 입술에서 난다는 특색과 혀끝에서 난다는 특색이 변별적인 자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별적인 자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적인 훈련 없이는, 그리고 음성학적인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요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변별적 자질이라는 그 말 자체에 벌써 이것을 물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변별이라는 말은 한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변별적이라는 말에는 소리와 소리의 관련성, 즉 대립의 개념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변별적 자질의 묶음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물질적 요인과 형식적 요인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합의 경향이 이미 트루베츠코이 자신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오늘날의 음운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음운관에는 물질적인 경향과 형식적인 경향의 두 가지 흐름이 종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성학과 음운학은 그 대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서로 무관하게 완전히 분리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음운학은 물질적인 경향과 형식적인 경향이 종합되어 있고, 그 물질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의 기초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말소리를 연구하는 태도는 아주 편파적인 것 같다. 음성학을 도외시하고 음운론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학이 있지만 음성학을 강의하는 - 어학분야에서 - 대학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음운학과 음성학은 다르지만, 그러나 음운학의 연구에 있어서 음성학이 절대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언어학 안에서의 소리 연구가 얼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원래 이 논문은 허 응 선생이 1982년 1월 15일 대한음성학회 주최의 "제 1 회 말소리 갈무리 모임(음성학 연수회)"에 특별 연사로 초청되어 특강의 형식으로 한 시간 반에 걸쳐 강의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줄이고 다듬었기 때문에 문체나 길이에는 차이가 나나 내용의 핵심은 그대로 살아 있다. 당시의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강연이었으므로 선생의 허락을 받아 이 기념호에 신게 된 것임을 밝혀 둔다.>>

< 이 현 복 >